Ⅲ. 고려의 등장과 발전

주제 15) 고려의 대외관계

학 교	
학 번	
이 름	

1. 9~10세기 동아시아의 정세

① 야율아보기에 의해 부족을 통일한 ( )의 성장
- ○ 926년 한반도 북쪽 지역에 있던 ( )을(를) 멸망
- ○ 일찍부터 연운 16주를 차지하고 있었고 중국의 혼란을 수습한 송나라가 이를 탈환하기 위해 거란과 전쟁을 벌여 (승리 / 패배)
  - ⇒ 송나라는 거란에 매년 세폐를 바치고 있었음

② 고려와 ( )과의 관계
- ○ 고려는 건국 초기부터 거란과 (친선 / 적대)
  - ⇒ 이유:
- ○ 고려는 ( )을(를) 내세워 영토 확장 모색

③ 고려와 송나라와의 관계
- ○ 고려는 송나라와 (친선 / 적대):
- ○ 송나라는 고려와 (친선 / 적대):

2. 고려와 거란과의 관계

	⇒	⇒
○ 원인: ○ 경과: ○ 결과:	○ 원인: ○ 경과: ○ 결과:	○ 원인: ○ 경과: ○ 결과:

※ 아래 만화를 일어난 순서대로 위의 내용에 붙여봅시다.

LIVEWORKSHEETS

※ 고려와 거란과의 항쟁과쟁에 대한 역사자료 및 지도자료

소손녕: "너희 나라는 신라 땅에서 일어났고, 고구려 땅은 우리 소유인데 너희가 침범했다. 또 왜 우리와 교류하지 않고 송나라와만 친한가?"

서 희: "아니다. 우리나라는 고구려를 계승했기에 나라 이름을 '고려'라 한 것이다. 우리가 너희와 교류하지 못한 것은 중간에 여진이 길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. 만약 그 땅을 우리가 되찾아 성을 쌓고 길을 연다면 어찌 교류하지 않겠는가?

양규는 거란군을 7번 싸워 모두 이겼고, 적에게 잡혔던 포로 3만 명을 구출했습니다. 마지막 전투에서 화살이 다 떨어지고 군사들이 쓰러져가는 순간에도 적진으로 돌격했습니다. 시신에는 수많은 화살이 박혀 있었는데, 끝까지 활을 놓지 않은 채 서서 전사했다고 기록될 만큼 처절하고 용맹한 싸움이었습니다.

강감찬은 거란군이 돌아가는 길목인 귀주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싸움이 치열할 때 갑자기 비바람이 북쪽에서 남쪽(고려군 쪽에서 거란군 쪽)으로 강하게 불어왔고, 고려군은 이 기세를 몰아 거란군을 몰아붙였습니다. 10만 대군 중 살아 돌아간 자가 겨우 수천 명에 불과할 정도로 완벽한 승리였습니다. 이후 강감찬은 거란의 재공격을 우려하여 개경에 나성을 쌓고 북쪽 국경에 압록강에서 도련포에 이르는 천리장성을 축조했습니다.

※ (　　)의 위치

3. 고려와 여진과의 관계

초창기 여진은 고려를 부모의 나라로 섬기며 조공을 바치기도 함.

⇒

여진이 부족을 통합한 이후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고려를 침공

⇒

(　　)은(는) 여진의 기병을 상대하기 위해 (　　)을(를) 조직

여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여진에게서 탈환한 지역에 (　　) 축조

⇒

관리의 어려움과 (　　)이(가) 관직에서 물러나면서 (　　)반환

⇒

여진이 강성해져 (　　) 건국 후 고려에 사대관계 요구 → 당시 고려의 실권자였던 (　　)이(가) 사대요구 (수용 / 거부)

LIVEWORKSHEETS